

## 유아 어머니의 자아존중감과 의사소통에 대한 '자녀의 힘을 북돋우는 부모' 프로그램의 효과

어 주 경\*(연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전문연구원)

김 선 우 (선덕유치원 원장)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고 유아 자녀와의 긍정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는 '자녀의 힘을 북돋우는 부모(EPT)'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그 효과를 밝혀 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을 통해 (1)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이 향상되는가? (2) 어머니가 지각하는 자녀와의 의사소통이 긍정적인 것으로 향상되는가? (3) 유아가 지각하는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이 긍정적인 것으로 향상되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어머니의 자아존중감과 의사소통의 관계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서울시에 위치한 유치원에 재원중인 만 4세 유아 25명과 만 5세 유아 35명,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로 총 60쌍인 120명이었다. 실험집단 어머니 30명(만 4세 12명, 만 5세 18명)에게 매주 1회 1시간 30분씩 총 7회의 부모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부모교육 전후로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측정 도구로는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을 측정기 위해 어주경(1998)이 번안한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질문지(Self-Esteem Questionnaire)'를 사용하였고, 어머니-자녀 의사소통의 측정은 심성경과 김나림(1997)의 '의사소통 척도(어머니용, 자녀용)'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은 각 연구문제에 따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해 t 검증을 한 후, 각 집단의 사전검사 점수와 사후검사 점수를 paired t 검증하였고, 어머니의 자아존중감과 의사소통과의 관계는 Pearson의 작률상관계수를 산출하여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EPT 프로그램 실시 전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이 통제집단과 동질집단이었던 실험집단에서 프로그램 실시 후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향상되었다.

둘째, EPT 프로그램 실시 전 어머니가 지각하는 자녀와의 의사소통이 통제집단과 동질집단이었던 실험집단에서 프로그램 실시 후 경계선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향상되었다.

셋째, 유아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은 EPT 프로그램 실시 전 후 모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

넷째, EPT 프로그램 실시 전 어머니의 자아존중감과 어머니가 지각하는 자녀와의 의사소통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없었으나, 프로그램 실시 후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